



농림축산식품부

설명자료

힘내라
대한민국

2020년 11월 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익직불정책과 정혜련 과장(044-201-1771), 정미영 서기관(1772)/ 제공일: 11월 2일(총 2 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공익직불제는 엄격한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 [매일경제(11.2) 보도에 대한 설명]

- 공익직불제는 농지·농업인 요건 등 법령상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실경작자(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)에게 지급
- 11월 2일 매일경제 <도시 살면서..빈 컨테이너 갖다놓고 연80만원 챙긴 '가짜농민'들> 제하 기사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☐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에 비해 신청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농민수당을 신청한 농민 수 증가
- ☐ 현행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, 누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



농림축산식품부 설명

- ☐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며,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.

- 또한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·기능 유지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.
-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·현장 점검을 강화하였고, 10월말까지 자격검증·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.
- 직불금 신청 시, 신청자의 보조사업 수령이력(쌀직불금, 유기질 비료 등)을 비교하여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고,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경작 여부를 소명토록 하였습니다.
- 이행점검 단계에서는, 국토부(토지정보)·행안부(주민등록) 등 관련 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지 소유면적,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확인하는 한편,
 - 신청자의 보조사업 수령 이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,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.
-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